

## 초등학교 문학 수업의 유형

곽준옥\*

### < 차례 >

1. 들어가며
2. 문학과 언어기능의 결합에 의한 유형
3. 문학 교육과정의 '실제'에 따른 유형
4. 나오며

### 1. 들어가며

많은 교사들이 문학 수업<sup>1)</sup>을 잘 하고 싶어 하며, 아이들 또한 문학 수업을 좋아한다. 초등학교 문학 수업은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 표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습자들이 다른 교과, 혹은 국어교과 내 다른 언어사용 기능 수업보다 더 흥미를 갖고 의욕적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문학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다. 교사의 의욕과 아이들의 흥미가 큼에도 불구하고 문학 수업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문학 수업 탐구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문학 수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어떻게 문학 수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학 수업의 방향 설정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문학 지도

---

\* 서울덕의초등학교(dorimom4369@hanmail.net)

1) 이 연구에서의 문학 수업은 문학 교수·학습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의 목적이다. 그것은 언어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인가, 문학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인가 하는 점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것은 교과서 편찬의 방향과 관련된다. 교과서에서, 각 단원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문학 제재가 어떤 능력을 기르고자 의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파악하는 데서 문학 수업의 목적을 설정하게 된다. 문학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문학 수업의 경우 문학 영역의 교육과정 내용을, 언어능력을 기르는 문학 수업의 경우,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영역의 교육과정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각 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어 교과서의 문학 수업을 위한 모형은 단원의 목표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학 단위이면 당연히 반응 중심 학습 모형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문학 수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의 고정된 방법이나 절차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문학 수업 시간에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문학 수업이 이루어지며, 교과서의 구성대로 수업이 흘러간다.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을 위한 수업’도 하나의 텍스트를 수용하거나 산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해 학습과 적용학습으로 학습의 성격이 구분된다.<sup>2)</sup> 그런데도 문학 수업의 경우 대부분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을 적용하는 수업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해학습과 적용학습은 수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수업 유형으로 나타나야 한다. 개정 국어 지도서의 경우 9개의 모형이 소개되어 있다.<sup>3)</sup> 다양한 관점에서 출발한 모형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교수·학습 요소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통합하여 이루어지고,<sup>4)</sup> 그

2) 7차 국어 교과서는 대개 대단원 1, 2차시가 도입학습과 원리학습 그리고 적용학습, 보충/심화 학습으로 되어 있다.

3) 국어과에 활용할 만한 모형으로 직접 교수법, 문제 해결 학습 모형, 창의성 개발 학습 모형, 지식 탐구 학습 모형, 반응 중심 학습 모형, 역할 수행 학습 모형, 가치 탐구 학습 모형, 전문가 협동 학습 모형, 토의·토론 학습 모형을 소개한다(개정 교과용 지도서 1-1, 2008).

4) 박태호(2001)는 이러한 모형 통합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교수·학습 절차로 이루어진 모형과 그것을 작동시키는 원리 사이의 상호교섭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상호교수의 핵심인 사회적 중재를 통한 자기 조절 사고 능력 신장, 근접 발달 지역 내의 스캐폴더에 의한 책임 이양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교사는 ‘질문, 요약, 예측, 명료화’

려다 보면 뚜렷한 하나의 모형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문학 수업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문학과 언어기능과의 결합에 의한 문학 수업의 특징과 문학 교육과정의 ‘실제’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는 수업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 2. 문학과 언어기능의 결합에 의한 유형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은 여전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6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언어기능이며, 문학과 문법은 가르칠 내용으로 영역의 층위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과서로 구현할 때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기능 교과서에 문학과 문법의 내용을 담게 된다. 특히 문학의 경우 다른 언어사용 기능 없이 독자적으로 문학을 가르치고 배울 수는 없다. 또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기능 습득을 위해서 문학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된다. 물론 비문학 내용과 문학 내용 둘 다 중요하게 언어기능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초등학교생들의 발달 특성상 문학에 많은 흥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학 내용을 많이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문학 수업은 문학을 가르치기 위해 언어기능을 활용하는 ‘문학을 위한 수업’과 언어기능을 가르치기 위해 문학을 텍스트로 사용하는 ‘문학을 통한 수업’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 가. 문학을 위한 수업

‘문학을 위한 수업’은 허구적 언어 예술로서의 문학을 감상하기 위해

---

라는 교수 전략과 절차에 의지해서 교수·학습 과정을 이끌어 가게 된다.

문학 제재를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고 감상하고 반응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전개하는 수업이다. 그리고 이 수업은 궁극적으로 문학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학을 위한 수업’에서는 문학 자체를 즐기고 감상하며, 문학 감상 능력을 위한 활동들을 펼치거나 문학 창작 능력을 기르는 지도 방향을 설정한다. 문학작품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총체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풍부한 상상력과 심미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국어과 교과서의 경우, ‘문학을 위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단원은 정서 표현의 언어를 다루는 단원으로 편성된다.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은 <표 1>과 <표 2>처럼 『읽기』 교과서에 주로 반영하되 성취기준의 성격에 따라서는 『쓰기』 교과서에서 반영하거나 『듣기·말하기』 교과서에 반영한다. 반영하는 방식은 단원의 목표나 차시의 목표 또는 활동 속에 녹아들게 하는 방식이다.

<표 1> 1-1 읽기 단원 학습 목표 및 학습 내용 요소

단원명	교육과정 내용(성취기준)	단원 학습 목표	차시 목표	학습의 성격
4. 느낌을 나누어요	문학(1)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의 재미를 느낀다. 문학(3) 그림 동화 속의 그림을 이야기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 말의 재미를 살려 글을 읽을 수 있다.	(1) 시를 읽고, 반복되는 말이 주는 느낌을 알아봅시다. (2·3) 반복되는 말의 재미를 살려 시를 읽어 봅시다. (4) 글과 그림을 관련지으며 읽어봅시다. (5·6) 글과 그림이 나타내는 뜻을 생각하며 그림동화를 읽어봅시다.	이해 적용  이해 적용
6. 이야기를 나누어요	문학(2) 문학 작품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그림이나 말로 표현한다. 읽기(3)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이해한다.	• 옛 이야기를 읽고, 재미있는 장면을 표현할 수 있다.	(1) 옛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2·3)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며 옛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4) 옛이야기를 읽고, 재미있는 장면을 찾아봅시다. (5·6) 옛이야기를 읽고 재미있는 장면을 말하여 봅시다.	이해 적용 이해 적용

&lt;표 2&gt; 2-1 읽기 단원 학습 목표 및 학습 내용 요소

단원명	교육과정 내용(성취기준)	단원 학습 목표	차시 목표	학습의 성격
1. 내 마음 내 마음	문학(1) 느낌을 살려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낭송한다. 문학(4) 재미있는 말이나 반복되는 말을 넣어 글을 쓴다.	• 말의 느낌을 살려 시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1) 말의 느낌을 살려 읽는 방법을 알아본다. (23) 반복되는 말의 느낌을 살려 시를 낭송하여 본다. (4) 말의 느낌을 살려 시를 낭송하여 본다. (56) 말의 느낌을 살려 이야기를 읽어 본다.	이해  적용  적용  적용
8. 상상의 나라	문학(2) 문학 작품 속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한다.	•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1)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하여 본다. (23) 인물의 모습과 행동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어 본다.	이해  적용

문학 단원의 수업이라 할지라도 『듣기·말하기』 교과서나 『읽기』, 『쓰기』 및 『듣기·말하기·쓰기』 교과서로 문학 단원을 다루기 때문에, 모두 문학 수업으로서의 문학 감상과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을 동시에 지도하여야 한다. 문학 단원이지만, 문학을 말하고 듣는 능력, 문학을 읽어 내는 독해 능력, 문학을 쓰는 창작 능력까지 문학과 관련한 포괄적인 언어능력 신장을 위한 수업이 병행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듣기와 읽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문학 텍스트를 접하기 어렵다. 심미적 읽기와 듣기의 전, 중, 후 활동과 전략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해야 한다. 텍스트를 읽는 행위 자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과서의 문학 수업은 통독 체제이다. 그리고 통독 후 독자 반응 활동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무조건 시간만 많이 주고 정독을 한 후 반응을 형성하라고 하면 초등학교 학습자

들은 아직 텍스트를 읽는 힘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을 의미화하지 못한다. 개별 학습자의 반응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작품(텍스트)은 여전히 감상의 대상으로서 감상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텍스트와 연결 고리를 갖지 못하는 반응은 무의미한 반응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말이 주는 느낌만 가지고 그 작품을 온전히 감상할 수 없으며, 한 두 차시에 걸쳐 시나 이야기를 읽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활동으로 그 작품을 충분히 감상하고 더 나아가 내면화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텍스트 중심의 단원 구성을 의도한 것은 문학 수업의 발전적인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칫 문학 교육의 본질을 놓친 채, 언어사용의 도구로만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수업의 목표나 본질은 문학 감상이나 창작에 있되, 그 과정에서는 각각의 언어 사용 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학 수업이 될 것이다.

문학을 위한 수업을 하려고 할 경우 문제점은 문학 텍스트가 원전 그대로 실렸는가 하는 것이다. 「바위나리와 아기별(7차 『읽기』 3-2-4)」은 단편 동화지만, 3차시에 걸쳐 원전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1차시는 ‘이야기를 읽고 인물이 한 일을 정리하여 봅시다.’의 목표를 설정하고, 동화의 앞부분 내용만 제시하고 있다. 2~3차시는 연속 차시로 구성하였는데 ‘이야기를 읽고 나라면 어떻게 하였을지 말하여 봅시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동화처럼 원전 동화가 그대로 실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텍스트의 일부분만 실리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실리거나, 아니면 요약본이 실리기도 한다. 『압록강은 흐른다(7차 『읽기』 6-2-3)』<sup>5)</sup>의 경우 장편 역사 동화인데, 「옥계천에서」라는 제목으로 일부분이 실려 있다. 이 작품의 경우 어린이들이 겪어보지 못한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시대 상황을 이야기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내용 이해가 어렵다. 수업 도입부에 작가와 시대 상황 그리고 작품의 줄거리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기는 하지만, 흥미를 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려워한다.

5) 이미륵 저(1946)/정규화 역(2000), 『압록강은 흐른다』, 다림.

『강아지똥』은 7차 교과서(『읽기』 1-2-1)와 개정 교과서에 실렸는데, 7차 교과서에는 두 차시가 연속 차시로 구성되어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말하여 봅시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야기의 내용은 원전 동화 내용을 줄인 그림책의 내용보다 더 요약되어 교과서에 실렸다. 개정 교과서에는 듣기·말하기 교과서의 영상 자료로 들어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작품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은 매우 많아서 교사가 이 작품들을 미리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는 힘들다. 교사의 개인적인 역량 탓으로 돌리거나 개인의 몫이라고 하기 보다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교사들이 동화책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많이 나와 있다. 『프레드릭』<sup>6)</sup>의 경우 ‘책 소개’, ‘읽기 전에’, ‘읽기 후에’,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 ‘유사한 메시지나 주제를 담고 있는 책’, ‘이야기해 봅시다’, ‘단어를 찾아라’, ‘함께 읽는 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sup>7)</sup>. 우리도 이러한 보조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은 이러한 보급이 무리라면 최소한 ‘친절한 지도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친절한 지도서란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나 줄거리를 안내해주는 지도서를 말한다. 특히 작품의 일부가 교과서에 실린 경우에는 더욱 이러한 안내가 필요하다.

## 나. 문학을 통한 수업

문학 수업의 또 다른 방향으로서 ‘문학을 통한 수업’이 있다. 문학 제재로 언어능력을 기르는 문학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확실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문학을 활용하여 언어능력을 기르고자 의

6) 레오 리오니 지/최순희 역(1999), 『프레드릭』, 시공주니어.

7) Kathleen M. Hollenbeck 지음/허정재 옮김(1999), 『레오 리오니 동화책 활용 지침서』, 언어세상.

도하는 수업이다. 문학은 폭넓은 의미의 서사(narrative)로서, 문학작품으로서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지닌 비문학적인 이야기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므로 문학을 통한 지도는 문학의 감상이나 창작보다는 문학을 통하여 특정한 언어능력을 기르는 데 수업의 핵심이 있다.

이처럼 문학을 통한 수업은 문학을 활용하여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둔다. 주로 정보, 설득, 친교의 언어를 다루는 언어단원에서 이와 같은 ‘문학을 통한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때의 문학이 허구적인 이야기와 사실적인 이야기를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이들 이야기는 그것이 허구물로서의 문학이든 사실적인 이야기이든 모두 언어능력 신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된다. 따라서 문학 감상이나 문학 자체의 지도보다는 문학을 통하여 각각의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것으로 언어능력을 기르는 데 수업의 주안점을 두게 된다. 그러므로 언어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활용되는 문학 제재는 그것이 문학 작품이라 할지라도 본격적인 문학 감상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어과 교과서 체제가 이들 문학을 언어능력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을 통한 수업’이 언어기능을 위한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교과서에 주어진 문학 텍스트를 단지 개개의 기능이나 전략을 학습하는 자료로만 하지 말고, 읽기 전 활동과 읽기 후 활동에서 문학 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문학을 통한 교육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오히려 기능이나 전략 위주의 목표중심 교과서 체제가 지닌 문제점을 극복할 수도 있다. 목표 중심으로 하다 보면 아무리 우수한 문학 텍스트라도 무시될 수 있고, 기능과 전략만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이른바 텍스트 중심의 학습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텍스트를 수용하거나 산출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여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별 기능이나 전략을 가르치는 것이다<sup>8)</sup>. 예를 들어 『읽기』 교과서의 시 읽기에서 ‘재미있는 말 찾기’가 있으면 재미있는 말이 들어가 있는 시를 선택하고 학습 활동을 여기에 매



몰시키기보다는 시를 한 편 읽는 데 필요한 기능이나 전략 등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한 후에, ‘좋은’ 시를 한 편 선정하여 제시한 후 여기에 필요한 기능이나 전략을 차시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재미있는 말 찾기도 분명 하나의 차시 목표 정도로는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를 읽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차시 목표로 반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의 특성’이나 ‘시 읽기의 중요성’ 등이 차시 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지나치게 제재의 내용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정 교과서 『읽기 1-1-3』에 『만복이는 풀잎이다』<sup>9)</sup>가 문장 부호에 알맞게 글을 읽기 위한 제재로 실려 있다. 이 그림책은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문장으로 쓰여 있어서 자연스럽게 시(詩)의 운율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교과서에는 언어기능을 학습하는 것과 관련이 되면서 문학적으로 우수한 작품으로 『만복이는 풀잎이다』를 선정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수업을 작품 위주의 내용 파악이나 감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 조심해야 할 것은 문학성이 우수한 이 작품을 단순히 언어기능 습득을 위한 도구로만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작품 외에도 『무지개 물고기』, 『프레드릭』 등의 좋은 작품들이 듣기 자료로 들어가 있는데 역시 언어기능이나 전략을 학습하는 자료로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문학을 위한 수업’이 문학 수업이되 언어 사용과 함께 이루어지듯이, ‘문학을 통한 수업’ 역시 수업의 주안점은 각 수업의 목표가 지향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의 신장에 두되, 문학 감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학 감상은 수업 운영 측면에서는 부수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문학작품이 감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수한

8) 기존에는 목표 중심형 단원 구성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언어 활동의 분절성을 촉발하여 이른바 ‘기능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었다. 무엇을 위해 그것을 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개별 기능이나 전략에 매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재미있는 말’이 학습 목표인 경우, 오로지 재미있는 말이 들어있는 텍스트를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모든 교수·학습 활동이 여기에 매몰되는 경우를 말한다.

9) 안도현(2002), 『만복이는 풀잎이다』, 태동어린이.

언어 결정체로서 언어능력을 기르는 자료로 활용되는 국면 또한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 3. 문학 교육과정의 ‘실제’에 따른 유형

문학 수업<sup>10)</sup>은 ‘문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문학의 개념적 지식과 심미적 읽기·듣기 전략을 익히기 위한 방법적 지식을 학습할 때는 객관주의 교수·학습이 필요하고 전략을 적용하여 반응을 형성하거나 심화할 때는 구성주의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객관주의 교수·학습에서는 기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교사 주도로 반복연습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구성주의 교수·학습에서는 고등지식(의미 구성)은 학습자 주도나 교사나 동료의 중재를 통한 자기 조절을 하여 습득한다고 본다.

개정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의 ‘실제’를 보면 ‘지식’은 <문학의 본질과 속성>, <문학의 양식과 갈래>, <한국 문학의 역사>로, ‘수용과 생산’은 <내용 이해>, <감상과 비평>,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작품 창작>의 내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식’을 학습 목표로 반영한 수업은 ‘이해학습’이며 ‘수용과 생산’을 학습 목표로 반영한 수업은 ‘적용학습’이다.

#### 가. ‘지식’ 중심의 이해학습

지식 중심의 이해학습에는 문학 지식 습득을 위한 수업과 문학 감상을 위한 방법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 교과서는 단원 내에서 학습 과정을 명료화하여 언어활동의 결과 자체만 강

10) 이때의 문학 수업은 다른 언어사용 기능을 위한 자료로 쓰인 문학이 아닌 문학 교육과정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학습 목표(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를 가진 문학 수업을 의미한다.

조하지 않고, 그러한 결과를 산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중시하였다. 이해학습에서 방법적 지식을 목표로 한 경우 과정을 교과서에 드러내어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 1) 수업의 특징

문학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가 교과서에 반영된 <표 3>을 보면, 문학의 본질과 속성, 문학의 양식과 갈래, 소통의 본질의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읽기 1-1-6 학습의 성격과 내용 범주 요소

학습의 성격	내용 범주 요소
이해학습	(1차시) 지식(문학의 본질과 속성)
적용학습	(2·3차시) 수용과 생산(감상과 비평)
이해학습	(4차시) 지식(문학의 양식과 갈래)
적용학습	(5·6차시) 수용과 생산(내용 이해)

‘문학의 양식과 갈래’의 지식 습득을 위한 이해학습은 ‘옛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1-1-6)’와 같은 차시 목표를 가진 수업이다. 교과서의 활동은 옛이야기의 개념을 알 수 있는 활동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되었다. 이 수업에서는 제시된 문학 작품을 감상하기 보다는 문학 감상을 잘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지식에 초점이 놓인다. 교과서의 활동 역시 옛이야기의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옛이야기의 특성이 옛날에 지어진 이야기이므로 주어진 제재를 읽을 때, 언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생각하며 읽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재를 읽은 후 내용 파악을 위한 질문도 단순히 제재의 줄거리 파악을 위한 질문이기 보다는 옛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을 한 후에 귀납적<sup>11)</sup>으로 옛이야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해

11) 최영환(2008)은 교수·학습 모형의 요소 분석 기준을 단원의 목표 특성, 목표 도달 방식, 교수·학습 참여자의 관계, 구성원의 과제 분담 방식으로 정하여 <표 4>처럼 하

보는 활동으로 옛이야기의 개념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학습’에서는 ‘시를 읽고, 반복되는 말이 주는 느낌을 알아봅시다.(1-1-4)’, ‘말의 느낌을 살려 읽는 방법을 알아봅시다.(2-1-1)’, ‘이야기를 읽고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글과 그림을 관련지으며 읽어본다.(1-1-4)’와 같은 목표 제시형을 취한다.

‘시를 읽고, 흉내 내는 말이 주는 느낌을 알아봅시다.(1-2-1)’일 경우 교과서에는 시범을 보이는 예가 들어가 있다. 학생 캐릭터가 흉내 내는 말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흉내 내는 말이 있으면 정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생생해.”라는 말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학 수업은 ‘문학을 위한 수업’임에 틀림없다. 자칫 개념 파악과 방법적 지식을 드러내놓고 가르친다고 하여 잘못된 문학 수업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 상 오히려 이러한 문학 수업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념이나 방법을 가르친다고 하여 제시된 문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학 텍스트를 재미있게 읽고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념과 방법을 습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해학습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사실적 지식이나 명제적 지식보다는, 텍스트를 듣거나 읽는데 필요한 방법적 지식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수용하게 해야 한다. 이상적인 독자이면서 전문가적인 교사가 각각의 전략을 안내하거나 시범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익힌 후 활동 위주의 다양한 표현을 하도록 해야 한다.

위 항목을 분류하고 있다.

<표> 교수·학습 요소의 분석 기준

요소	단원의 목표 특성	목표 도달 방식	교수·학습 참여자의 관계	구성원의 과제 분담 방식
하위 항목	지식 목표 기능 목표	연역적 접근 귀납적 접근	교사 일방형 교사 주도형 교사·학생 대등형 교사 지원형	개별형 공동형 분담형

## 2) 적절한 수업 모형

개정 국어과 지도서에 나와 있는 교수·학습 모형은 직접 교수법, 문제 해결 학습 모형, 창의성 계발 학습 모형, 지식 탐구 학습 모형, 반응 중심 학습 모형, 역할 수행 학습 모형, 가치 탐구 학습 모형, 전문가 협동 학습 모형, 토의·토론 학습 모형이다. 이 중에 직접 교수 모형만이 교수 모형으로 명명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학습 모형으로 명명되었다. 그만큼 직접 교수 모형은 교사 주도의 수업 모형임을 알 수 있으며, 다른 모형들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형을 적용할 때는 절차, 활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장단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모형에 따라서는 실제 수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다른 모형이나 기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다. 국어과 지도서에는 각 모형에 제시된 절차가 실제 수업 운영 시 구동되는 ‘교수·학습의 절차’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sup>12)</sup> 엄밀히 따져 보면 층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직접 교수 모형은 교수의 원리로, 문제 해결 학습 모형·창의성 계발 학습 모형·가치 탐구 학습 모형은 학습의 원리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 협동 학습 모형·역할 수행 학습 모형은 일반적인 교수·학습 모형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기법에 해당한다(최영환, 1999).<sup>13)</sup> 이러한 모형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가지 모형만을 고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학 수업의 이해학습일 경우 객관주의 교수·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한 직접 교수법 모형<sup>14)</sup>이 유용하다. 또한 지식탐구 학습 모형과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접 교수 모형은 과정이나 절차를 세분

12) 물론 교과서 구성 시에는 한두 가지 ‘교수·학습 절차’나 ‘주요 활동’이 제외되거나 추가될 수 있고, 한두 가지 ‘교수·학습 절차’만 집중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는 것과 모형을 재구성하여 활용할 때는 해당 모형의 주요 특성이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긴 하다.

13) 최영환의 논의에서는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이 거론되지 않는다.

14) 6차 국어과 교과용 지도서에 직접 교수 모형이 제시되면서, 모든 국어 수업에 이 모형을 적용하는 폐단이 생기기도 하였다.

화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시범이 가능한 학습 과제나 개별 기능 요소를 가르치는 데 적합하다. 따라서 교사가 구체적으로 시범보일 수 있는 문제 해결 과정이나 언어 사용 기능 영역에 잘 적용될 수 있으며, 국어 지식이나 문학 영역의 개념이나 원리 학습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직접 교수 모형은 이해학습 차시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야기를 읽고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와 같은 이해학습에서는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고구술을 통한 시범이나 안내와 같은 직접 교수법의 시범 보이기 단계와 방법을 익히기 위한 ‘연습하기’를 해야 한다. 즉 기능을 1차시에 배운 후 2~3차시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지식 탐구 학습 모형은 구체적인 국어사용 사례나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국어 생활에 일반화할 수 있는 개념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는 학습자 중심의 모형이다. 지식 탐구 학습 모형은 ‘문학 지식’을 습득하는 데 유용한 모형이다.

수업 목표	<읽기 1-1-6단원 1차시>	지식 탐구 학습 모형
	옛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학습 활동
문제 확인하기	동기 유발 학습 문제 확인 학습 순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상황 인지하기</li> <li>• 학습문제 제시하기</li> <li>• 학습 활동 순서 알아보기</li> </ul>
자료 탐색하기	기본 자료 탐구	• 제목과 그림보고 내용 예측하기
지식 발견하기	자료 비교	• 언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생각하며 읽기
	지식의 발견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옛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기</li> <li>• 옛이야기라는 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하기</li> </ul>
지식 적용하기	지식의 적용 지식의 일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옛이야기를 읽는 까닭 생각해보기</li> <li>• 옛이야기란 읽으면 좋은 점 말하기</li> </ul>

예를 들면 ‘옛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학습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동기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학습자가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 내적으로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학습자의 경험이 부족하다면 관

런 지식을 스스로 발견하는 학습은 어려운 것이다.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은 모든 차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학습 문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 모형은 이미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경우, 학습자의 수준에 비하여 학습 내용이 나 절차가 쉽고 간결한 경우, 기본 학습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학습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수업 목표	<읽기 1-1-6단원 4차시> 문제 해결 학습 모형	
	옛이야기를 읽고, 재미있는 장면을 찾을 수 있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학습 활동
문제 확인하기	동기 유발 학습 문제 확인 학습 순서 안내	• 문제 상황 인지하기 • 학습문제 제시하기 • 학습 활동 순서 알아보기
문제 해결 방법 찾기	글 읽고 내용 파악하기	• 예측하기 • 누가 어떤 피를 내었는지 생각하며 읽기
	문제점 찾기	• 인물의 말과 행동 알아보기
	해결방법 찾기	• 이야기의 재미있는 장면 알아보기
문제 해결하기	해결방법 정리하기	• 재미있는 장면을 말할 때 떠올릴 것 정리하기
일반화하기	적용하기 정리하기	• 느낌 나누기 • 정리하기

이 모형은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탐구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적절한 적용 상황을 선택해야 한다.

이해학습에 직접 교수 모형과 지식탐구 학습 모형, 문제 해결학습을 적용한다고 해서 교수·학습 모형이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수·학습 상황에서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sup>15)</sup> 먼저 학습할 내용 개념이나 학습의 필요성에 초점을 둔 상황 분석 활동이나,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한다. 직접 교수의 ‘설명 및 시범’ 절차를 이용하여 텍스트와 상호작용 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전략을 명시적으로 가

르치거나 시범을 보인다. 이상적인 독자이면서 전문가적인 교사가 각각의 전략을 안내하거나 시범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시범을 보일 때는 교사 주도의 수업이 되었다가, 학생이 전략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을 할 때에는 학생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교사의 역할을 점차 줄여나가고 학생 스스로의 학습을 늘려가야 한다.

### 나. ‘수용과 생산’ 중심의 적용학습

적용학습은 이해학습에서 익힌 방법을 적용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과 비평을 하는 ‘수용과 생산’ 위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아는 것”의 비중이 커야 하는 이해학습과 달리 적용학습에서는 “하는 것”의 비중이 커야 한다.

#### 1) 수업의 특징

이해학습과 달리 적용학습은 학생들의 활동이 주축이 되어 ‘아는 것’보다는 ‘하는 것’의 비중이 커진다. 적용학습에서는 한 편의 문학 텍스트가 중심이 되어 활동을 하는 문학 수업이 되어야 한다. 즉, 하나의 생산이나 이해해야 할 텍스트를 선정하고 그것을 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나 전략을 상정하여 이를 차시의 목표로 반영하는 방식이다.<sup>16)</sup> 이해학습에서 배

15)

&lt;표&gt; 이해학습의 예

요소 차시 활동	교수·학습 참여자의 관계	수업 과정 및 전략	구성원의 과제 분담 방식
상황분석 개념/필요성 파악 및 정리	교사, 학생 대등형	• 지식 탐구 학습의 지식 발견하기	공동형
기능/전략 설명 및 시범 보이기	교사 일방형	• 직접 교수법의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공동형
기능/전략 연습하기	교사 지원형	• 직접 교수법의 질문하기, 활동하기	개별형/분담형

16)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을 제시할 때 이른바 텍스트 중심형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



운 전략을 실제 적용하고 반응을 표현하는 활동 위주로 이루어진다.

물론 한 편의 문학 텍스트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한 두 차시의 몇 가지 활동만으론 어렵다. 특히 고학년의 경우 텍스트의 분량이 길어 내용을 이해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텍스트의 내용을 대강 알아보기만 하고 다른 활동을 하는 수업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 교과서에서는 적용학습의 경우 두 차시를 하나의 수업 목표로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적용학습’을 할 때에는 언어 사용의 목적을 드러내면서 과제(텍스트) 제시형을 취한다. 예를 들면 ‘반복되는 말의 재미를 살려 시를 읽어 봅시다.(1-1-4)’, ‘옛이야기를 읽고 재미있는 장면을 말하여 봅시다.(1-1-6)’는 감상과 비평에 대한 학습 목표이다. ‘글과 그림이 나타내는 뜻을 생각하며 그림동화를 읽어봅시다.(1-1-4)’,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며 옛이야기를 읽어봅시다.(1-1-6)’는 내용 이해와 관련된 학습 목표이다.

‘시를 읽고, 생각과 느낌을 말하여 봅시다.’ ‘그림 동화를 읽고, 인물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말하여 봅시다.’, ‘시를 읽고 느낀 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해 봅시다.’ ‘작품에 대한 느낀 점을 말과 글로 표현해 봅시다.’, ‘인물의 성격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작품을 읽고, 인물의 성격에 맞게 이어질 이야기를 꾸며 봅시다.’ ‘작품에 대한 느낀 점을 말과 글로 표현해 봅시다.’로 제시된다.

## 2) 적절한 수업 모형

개정 교과서에 따른 지도서를 보면 문학 수업의 적용학습이라고 해서 모두 반응 중심 학습 모형만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문학 수업이라고 해도 ‘가치 탐구 학습 모형’, ‘토의·토론 학습 모형’, ‘창의성 계발 학습 모형’

---

고 있지만, 실제 성취기준을 보면 여전히 개별 기능이나 전략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개정 교과서에서 텍스트 중심형 단위 구성 방식을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7)</sup>.

독자반응 이론을 문학에 적용한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은 학습자들의 반응에 초점을 둔 바람직한 문학 수업 모형이다.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은 텍스트의 중요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독자의 위치를 부상시킨다. 이는 작품에 대한 해석이 독자(학습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모형의 장점은 학습자 개개인의 반응을 최대한 존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학습자의 역동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응 표현 활동에만 치우침으로써 정작 중요한 텍스트와 독자와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정한 문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응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학습자들의 문학 능력이 신장되지 않는다.

반응 중심 문학교육에서의 반응은 독서 과정과 독서 후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용어로 보아야 한다. 독서 과정에서 텍스트의 역할을 빼앗지 않고, 그것을 독자의 역할, 문화, 독서 경험, 성향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독서가 끝난 뒤 반응을 표현하는 과정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은 문학적인 텍스트, 특히 문학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이 요구되는 문학 감상 학습에 적합한 모형이다. 이 모형을 적용할 때에는 특히 작품을 읽고 난 후의 반응 활동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감상의 바탕이 되는 작품 읽기와 이해 과정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반응 준비하기 단계는 학습 문제를 확인하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단계이다. 작품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거나, 삽화나 그림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일상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 반응 형성하기 단계는 작품을 읽

17)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여전히 지도서에는 한 가지 모형을 한 차시에 적용하여 모든 문학 수업이 한 모형의 절차만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진 안 된다는 것이다. 지도서에 9가지 모형을 소개하고, 이 모형을 적용한 예시 지도안을 기술 한 것은 각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습득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학 수업을 위해서는 여러 수업 모형의 절차를 경직된 교수·학습 절차로 적용하지 말고 하나의 교수·학습 방안으로 보고 적절히 통합하여 적용해야 한다.

으면서 학습자가 최초의 반응을 형성하고, 작품을 읽고 난 후의 생각이나 느낌을 반응 일지 등에 간단히 정리해 보는 단계이다. 반응 명료화하기 단계는 각자 정리한 반응을 상호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반응을 정교화하거나 확장하는 단계이다. 반응 심화하기 단계는 주제, 인물, 사건, 배경 등을 토대로 다른 작품과 관련 지어보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실 세계나 자신의 삶에 투영해 봄으로써 반응을 심화하는 단계이다.

수업 목표	<읽기 1-1-6단원 5-6차시>	반응 중심 학습 모형
	옛이야기를 읽고, 재미있는 장면을 말할 수 있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학습 활동
반응 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 유발</li> <li>• 학습 문제 확인</li> <li>• 학습의 필요성 확인</li> <li>• 배경 지식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 유발하기</li> <li>• 학습문제 제시하기</li> <li>• 학습 활동 순서 알아보기</li> <li>• ‘떡시루’와 ‘떡’에 대해 이야기하기</li> </ul>
반응 형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읽기</li> <li>• 작품에 대한 개인 반응 정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과 질문 보고 이야기하기</li> <li>• 작품 읽기</li> <li>• 호랑이와 두꺼비가 한 말과 행동 말하기</li> </ul>
반응 명료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에 대한 개인 반응 공유 및 상호 작용</li> <li>• 자신의 반응 정교화 및 재정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랑이와 두꺼비가 한 말과 행동 중 가장 재미있는 것 말하기</li> <li>• 재미있는 장면의 말을 느낌 살려 읽기</li> <li>• 인물의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하기</li> </ul>
반응 심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작품과 관련짓기</li> <li>• 일반화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이야기 읽기</li> <li>• 옛이야기의 재미있는 장면에 대해 말하기</li> </ul>

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곤 한다. 이 경우에 처음에는 반응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점차 상호 작용 등을 통하여 반응을 명료하고 정교하게 하면서 다른 작품과 관련지어 심화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사는 학습자 개개인의 반응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자가 단순한 반응을 제시하거나 표현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타당하고 명료한 반응, 심화되고 확장된 반응으로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상호 작용을 거쳐 학습자가

스스로 반응을 성찰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은 학습자가 언어에 내재된 가치를 탐구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심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데 알맞은 모형이다.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가치의 탐구가 필요하거나 특정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국어사용 영역, 문학 영역, 국어지식 영역의 수업에 적합한 모형이다. 문학 작품에 내재된 다양한 가치를 분석하여 자신의 기준으로 재해석한다.

수업 목표	<읽기 1-2-1단원 5-6차시>	가치 탐구 학습 모형
	그림 동화를 읽고, 인물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탐구하기	동기 유발	• 동기 유발하기 • 전시 학습 내용 떠올리기
	학습문제 확인 자료 분석	• 학습문제 제시하기 • 예측하기
가치 확인하기	가치 확인	• ‘고양이는 나만 따라 해’ 읽기
	가치 근거 확인	• ‘고양이는 나만 따라 해’를 다시 읽고, 여자 아이와 고양이 한 일 알아보기
가치 선택하기	가치 비교 및 평가	• 인물이 한 일에 대한 생각과 느낌 이야기하기
가치 재구성하기	가치 재구성	• 짝과 함께 ‘따라 하기’ 놀이하기
	가치 적용	• 인물에게 내 생각 말하기

국어과의 가치 탐구 학습은 다양한 가치의 발견과 이에 대한 비판적 수용에 그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어과에서 가치를 다루는 목적은 합의된 가치를 이끌어 내거나 내면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가치를 접하고 이를 입증하는 근거와 그것의 타당성을 탐구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토의·토론 학습 모형은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들끼리 일정한 규칙과 단계에 따라 대화를 나눔으로써 학습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습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공동 학습 모형의 한 형태이다. 토의란 공동의 관심사가

되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원들이 협력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 형태이다. 토론이란 찬반의 입장이 분명한 특정 문제에 대하여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쟁점에 대하여 논쟁하는 대화 형태이다. 문학 수업에서의 토의·토론 학습은 다른 학습 모형과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기중심적인 편협한 텍스트 이해나 해석의 무정부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토의·토론을 병행하여 보다 타당하고, 깊이 있고, 확장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의성 계발 학습 모형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성이나 적용이 많이 요구되는 표현 영역, 비판적 이해 영역, 문학 창작 및 감상 영역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읽고 줄거리를 간추려 봅시다.’라는 차시와, ‘이야기를 읽고,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여 써 봅시다.’라는 차시가 있을 경우, 전자보다는 후자에 적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력이 많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갖추어진 학습자에게 적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반응 중심 학습 절차로 제안된 ‘반응 준비하기→반응 형성하기→반응 명료화하기→반응 심화하기’는 실제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한두 단계를 빼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 한두 단계를 변형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개의 모형을 혼합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sup>18)</sup> 그리고 모형을 적용할 때, 어느 단원은 반드시 이 모형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어떤 특정한 유형을 적용할 때 그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7차 교과용 지도서).

#### 4. 나오며

본질적으로 문학교육은 다른 교과와 달리 도달점 행동이 명료하게 진술되지 않으며, 한 편의 문학 텍스트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교과서 체제상 불가피하게 목표가

나누어지고 단일한 목표에 따라 문학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학 텍스트를 충분히 감상하고 내면화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일차적으로는 문학교육은 목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단위 수업 시간 구성으로 한 작품을 한 가지 목표로 다룰 수밖에 없더라도 최대한 문학적 감동을 체험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문학 수업을 할 때는 반응 중심 문학 교수·학습 모형의 절차에만 한정하지 말고 여러 교수·학습 모형의 절차 중 필요한 절차들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천편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지도서 및 지도안과 일치시키려는 규격화된 문학 수업이 아닌 다양한 수업 모형 절차와 전략을 역동적으로 활용하는 문학 수업이 되어야 한다.\*

18)

&lt;표&gt; 적용학습의 예

차시 활동 \ 요소	교수·학습 참여자의 관계	수업 과정 및 전략	구성원의 과제 분담 방식
제재 및 기능/ 전략에 대한 배경지식 떠올리기	교사 주도형	•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의 반응 형성 준비하기(목적 설정하기, 스키마 활성화하기, 예측하기, 사전 어휘 학습하기)	공동형
텍스트 이해하기	교사·학생 대등형	•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의 반응 형성하기(읽기 전·중·후 또는 듣기 전·중·후 전략)	개별형
배운 기능/ 전략을 적용하기	교사 지원형	•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의 문제 해결, 일반화하기 •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의 반응 공유하기/표현하기	개별형/공동형

\* 본 논문은 2008. 10. 31. 투고되었으며, 2008. 11. 6. 심사가 시작되어 2008. 11.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 참고문헌

- 개정 교사용 지도서 국어 1-1(2008), 교육과학기술부.
- 개정 교사용 지도서 국어 2-1(2008), 교육과학기술부.
- 7차 『읽기』 교과서 1-2(2008), 교육과학기술부.
- 7차 『읽기』 교과서 3-2(2008), 교육과학기술부.
- 7차 『읽기』 교과서 6-2(2008), 교육과학기술부.
- 경규진(1993),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구인환 외 공저(1999), 『문학교수·학습 방법론』, 삼지원.
- 권혁준 외 공저(2007), 『아동문학과 교육』, 박이정.
- 김상옥(2001). 초등학교 아동문학 제재의 위계화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2, 국어교육학회, pp.151~178.
- 김상옥(2001b), “서사교육의 교육과정”,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 박태호(2001), “초등 국어과 교수·학습 현상의 개념과 해석 모형”,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교수·학습 이론과 실제』,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연구소.
- 박태호(2001),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 원리와 실제”, 계룡국문교육 제3집.
- 안도현(2002), 『만복이는 풀잎이다』, 태동어린이.
- 이미륵 저(1946) / 정규화 역(2000), 『압록강은 흐른다』, 다림.
- 임성규(2008), “좋은 문학 수업의 기준과 요건”, 한국초등국어교육 3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최영환(1999),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의 체계화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9, 국어교육학회.
- 최영환(2001),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교재 구성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2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최영환(2008),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과 수업 설계”, 한국초등국어교육 3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최지현(1998), 문학 감상 교수·학습 모형 탐구, 선칭어문 26집.
- 레오 리오니 저 / 최순희 역(1999), 『프레드릭』, 시공주니어.
- Kathleen, M. H. 저 / 허정재 옮김(1999), 『레오 리오니 동화책 활용 지침서』, 언어세상.
- Hancock, M. R.(1993), *Exploring and extending personal response through literature journals*, The Reading Teacher, Vol. 46, No.6
- Many, J. E.(1991), *The Effect of Reader Stance on Student's Personal Understanding of*

*Literature*, Texas A & M University.

- Rosenblatt, L. M.(1985), "*The transactional theory of literary work :Implications for research*",  
In C. Cooper(Ed), *Researching response to literature and the teaching of literature*, Norwood, NJ : Ablex.
- Ruddell, R. B.(2002), *Teaching Children To Read and Write :Becoming an Influential Teacher*, Allyn & Bacon.
- Sipe, L. R.(2000), *The construction of literary understanding by first and second graders in response to picture storybook read-alouds*, IRA vol 35. NO 2. pp.252~275.
- Tompkins, G. E. & Hoskisson, K.(1995), *Language Arts :Content and Teaching Strategies*, Prentice - Hall, Inc.
- Vacca, J. A. L., Vacca, R. T. & Gove, M. K.(2000),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Addison-Wesley Educational Publishers Inc.
- Wollman-Bonilla, J. E. & Werchadlo, B.(1999), *Teacher and peer roles in scaffolding first graders' response to literature*, IRA vol 52. NO 6, pp.598~608.



## <초록>

### 초등학교 문학 수업의 유형

곽춘옥

초등학교 문학 수업은 문학을 가르치기 위해 언어기능을 활용하는 ‘문학을 위한 수업’과 언어기능을 가르치기 위해 문학을 텍스트로 사용하는 ‘문학을 통한 수업’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모두 문학 수업으로서의 문학 감상과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을 동시에 지도하여야 한다. ‘문학을 위한 수업’이 문학 수업이되 언어 사용과 함께 이루어지듯이, ‘문학을 통한 수업’ 역시 수업의 주안점은 각 수업의 목표가 지향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의 신장에 두되, 문학 감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정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의 ‘실제’를 보면 ‘지식’은 <문학의 본질과 속성>, <문학의 양식과 갈래>, <한국 문학의 역사>로, ‘수용과 생산’은 <내용 이해>, <감상과 비평>,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작품 창작>의 내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식’을 학습 목표로 반영한 수업은 ‘이해학습’이며 ‘수용과 생산’을 학습 목표로 반영한 수업은 ‘적용학습’이다.

‘지식’ 중심의 이해학습에는 문학 지식 습득을 위한 수업과 문학 감상을 위한 방법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학 수업의 이해학습일 경우 직접 교수법 모형, 지식 탐구 학습 모형과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용과 생산’ 중심의 적용학습은 익힌 방법을 적용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과 비평을 하는 수업이 이루어진다. 적용학습이라고 해서 모두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의 절차만을 따르는 않아야 한다. ‘가치 탐구학습 모형’, ‘토의·토론 학습 모형’, ‘창의성 계발 학습 모형’ 등 다양한 모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핵심어】** 문학을 위한 수업, 문학을 통한 수업, 이해학습, 적용학습

<Abstract>

A Study of Type of Literature Teaching · Learning

Kwak, Chun-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 type of Literature teaching · learning in Elementary school. It is based on combination of Literature and language skill and 'practice' in Literature curriculum.

Literature teaching · learning in Elementary school is teaching fiction and teaching through story. We should taught both Literature appreciation and language skill ability extension at teaching fiction and teaching through story.

The content of 'practice' in Literature curriculum is 'knowledge' and 'reception and production'. The comprehension instruction is content of 'knowledge'. This might include knowledge about strategies, text and about genres. The application instruction is content of 'reception and production'. This might include understanding of meaning and Literature appreciation.

The comprehension instruction is able to use direct teaching, knowledge study learning, problem solution learning. The application instruction is able to use response center learning, value investigation learning, discussion · debate learning, creation developing learning.

**[Key words]** teaching fiction, teaching through story, comprehension instruction, application instruction

## 【토론문】

## “초등학교 문학 수업의 유형”에 대한 토론문

한명숙(공주교육대학교)

이 발표문에는 일상적 수업을 질을 높이기 위한 문학 수업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을 변형하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아울러 목표 중심 문학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하고, 이해(원리) 학습과 적용 학습을 위한 문학 수업의 실제 방안을 보여 준다. 이들 이해(원리) 학습과 적용 학습이 제7차 국어과 『읽기』 교과서 및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실험용 『읽기』 교과서가 제시하고 있는 학습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발전적 방안 모색을 위한 고심의 결과라 보인다.

그런데 발표문을 읽다 보면 몇 가지 면에서 명료하게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생긴다. 이 의문은 문학교육과 문학 수업이 해결해야 할 핵심적 과제라고 여겨져 토론의 자리에서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며, 문학 수업에 관하여 고민해 보는 장을 열어 보임으로써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 1. 기본 개념 문제

- (1) 문학 수업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보 단위, 설득 단위, 친교 단위에서 시나 동화 등의 문학 제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도 문학 수업인가?
- (2) ‘일상적인 문학 수업’, ‘일상적 수업으로서 문학 수업’이란 용어 혹

은 개념의 필요성 및 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문학 수업의 현실 태를 어떻게 규정하게 되는가?

- (3) 이 발표문의 핵심이 되는 ‘목표 중심 문학 수업’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발표자가 말하는 “문학을 위한 문학 수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 문학 수업에 대한 인식의 문제

- (1) 문학 수업과 국어 수업의 관계는 어떠한가? “국어 수업 외의 별도의 문학 수업만이 진정한 문학 수업”이라고 한 진술에서도 국어 수업과 문학 수업을 어떤 차이와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지 명료하게 읽히지 않는다.
- (2) 국어 수업으로서의 문학 수업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국어 수업으로서 문학 수업과 다른 “문학을 위한 문학 수업”의 정체성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문학을 위한 문학 수업”은 국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가?

## 3. 문학 수업 방법에 대한 관점의 문제

- (1) 이해 학습 혹은 원리 학습에 대하여 그 용어나 개념의 차이점 및 취사 선택의 적절성 정도를 어떻게 보는가? 또 그 가운데 어떤 개념을 현장 수업에서 수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는가?
- (2) “일상적 수업은 목표 중심 문학 수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진술에서 이 발표문의 논지가 현실의 목표 중심 문학 수업 토대 위에서 ‘진정한 문학 수업’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7차 국어과 교과서의 문학 단원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교과서가 제시하는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목표 중심 문학 수업은 ‘진정한 문학 수업’이 될 수 없는가?

- (3) ‘적용 학습’을 위한 문학 수업에서 ‘수업 과정 및 전략’으로 제시된 수업 과정은 발표자가 제시한 ‘반응 형성을 위한 준비 단계－반응 형성 단계－반응 공유 및 명료화 단계－반응 표현 단계’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단계가 원리 학습에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토론문이 어수선하고, 발표문이 그렇게 읽힌 까닭은 현장의 생생한 문학 수업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탓이다. 더 막대한 원인은 국어 교과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문학교육의 위상이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학 수업의 과제가 그렇게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문학교육 담론에 투영되어서 일지도 모른다. 발표문은 이를 잘 드러내 주었고, 현실적으로 문학 수업의 핵심이 국어과 교육의 범주 안에서 문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체계의 현실에서 문학교육의 현실태를 명료하게 인식하게 했다. 결국 문학 수업은 ‘언어’를 공통으로 하는 국어 교과 안에서 ‘한 지붕 세 가족’(한철우, 「국어교육 50년, 한 지붕 세 가족의 삶과 갈등」,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연구』 제21권, 2004)으로 살아가는 방안의 모색에서 출발해야 함도 분명해졌다.

문학교육 담론과 교실 문학 수업의 어수선함은 ‘문학 수업’ 혹은 ‘국어 수업’의 정체성이나 개념을 확립하는 기반을 명료하게 하여 정리하고 정돈해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국어 교과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수업이 그 방향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교사가 의도하는 방향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이 발표문은 분명히 인식하게 해 주었다. 아울러 국어 교과의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문학 수업과, 국어과 수업 외의 장면 및 수업 외의 장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문학교육의 자장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노력으로 학생들의 문학능력을 키우는 교육적 기획을 마련해야 하는 문학 교사와 문학교육론자의 막중한 과제도 인식하게 해 주는 계기도 제공해 주었다. 새로운 시도로 문학 수업의 자장을 심화하고자 한 발표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